2021 안녕, 책꾸러미

'안녕, 책꾸러미'는 어린이책 읽는 사서들의 모임 '어린이 도서발굴단(어린이 도발단)'이 추천하는 연령별 책꾸러미 서비스이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더 쉽고 편하게 권하기 위해 고안해낸 서비스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글. 사진. 장미선(별꿈도서관 사서)

좋은 책을 권하고 싶은 마음

오늘도 도서관 사서는 어린이 자료실에 들어서는 이용자를 조심스레 관찰한다. 읽을 책을 스스로 고를 만큼 자란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자~ 오늘은 어떤 학습만화를 먼저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책이 놓인 서가 자리까지 훤히 꿰뚫어 우선 살피고, 부모님은 학습에 도움이 되면서도 읽기 싫다 소리 안 할 만큼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책이 어디 숨어있을까 고심하여 고른다.

'이 책 너무 재밌는데 좀 빌려 가시면 어때요?'라든가 '그건 그림책이지만 그렇게 어린아이가 읽기엔 너무 심오해요'라며 한마디 건네 책을 고르는 분의 수고를 거들고 싶지만, 사서가 언제나 자료실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론 좋은 어린이책을 지나치는 이용자를 보는 사서의 마음은 조급하다. '이 책은 아이가 더 자라면 그림만 많고 글이 적다며 금세 휙 보고 치워버리거나, 동생들이 보는 책이라며 안 보려 할 텐데…' 혹은 '이 책은 이야기와 그림이 따뜻해서 좋고, 이 책은 색감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이 책은 번뜩이는 재치가 있어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어린이책은 성인책과는 다르게 성장 단계별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 물론 좋은 그림책은 글로도, 그림 자체로도 전 연령대가 즐기는 추세이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한들 글을 줄줄 읽는 초등 고학년의 아이가 유아 그림책을 즐기게 되는 경우는 적다.

좋은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사서들

2018년 가을, 이런 마음과 마음이 모여 좋은 어린이책을 더욱 쉽고 편하게 권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고양시 사서 7명이 머리를 맞대었고 '안녕, 책꾸러미' 서비스는 그렇게 탄생했다. 익히 널리 알려진 책이나 문학상 수상으로 누구나 접하기 쉬운 책보다는 작년과 올해 출판된 도서 중 최대한 많은 책을 여러 사서가 직접 읽어보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13명의 사서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여섯 차례의 모임을 가졌고, 6세부터 13세까지 연령대별 4단계의 책꾸러미와 부모를 위한 그림책까지 총 110권을 선정하였다.

도서관에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많은 어린이 책을 읽은 적이 없다며 읽어야 할 책 수에 대한 방대함을 이야기하기도, 선정한 책들을 보고 있자니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은근히 지어지는 미소도, 어린이들이 우리 같이 재미있게 읽어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설렘도 있었다.

고양시 사서가 권하는 어린이책 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 좋은 책을 함께 읽고픈 소박한 마음이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닿기를 바라며…. 올해도 인사해 본다. 안녕, 책꾸러미!

책꾸러미

어린이도서발굴단(어린이도발단)이 직접 읽고 추천하는 연령별 도서꾸러미

대상 6세~13세, 부모

이용 한 명당 1꾸러미(5권), 14일 대출

반납 책꾸러미를 빌린 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로 직접 반납

※ 어린이도발단의 추천도서는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